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6년 9월

선교편지 제 93 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이곳은 일년 내내 30도를 넘는 무더운 곳입니다. 매일, 매월 시간은 잘 가는 것 같은데, 계절의 변화가 없다보니 일년중 몇월을 지나가는지 새삼스럽게 생각을 해야 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매년 8월이 가까이 오면, 벌써 한 해가 지났구나하는 생각이 들정도 도시 전체에 큰 변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필리핀의 3대 축제 중의 하나인 '다바오의 까다야완 (Kadayawan sa Dabaw) 축제'가 매년 8월 셋째 주에 있는데, 8월초부터 도시 전체가 축제 준비로 요란하기 때문입니다. 길거리마다 화려한 꽃과 현란한 표시판들로 장식이 되고, 상점들은 각종 세일로 분위기를 한껏 올려 놓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매년 7, 8월이 되면, 대부분의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의 담장 밖으로 북과 징과 같은 타악기로 연주하는 매우 요란한 음악 소리가 들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축제를 대비하여 학생들이 총동원되어 퍼레이드를 위한 연습을 열심히 하기 때문입니다. 한 해동안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며 다바오 뿐만 아니라 민다나오 전역에서 다양한 전통 행사와 축제로 8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축제 기간 중에 최고의 행사는 다바오 도심에서 펼쳐지는 '인닥인닥 사 까다라난 (Indak-Indak sa Kadalanan)'이라는 각 학교별, 단체별 '전통 춤 경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와 지역의 명예를 걸고, 도시 한 복판을 누비며 오랜동안 준비한 전통 춤을 선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참가자 모두가 진하게 화장을 하고, 화려한 전통(?) 옷으로 치장을 하고, 요란한 타악기 연주에 맞추어 일사불란하게 춤을 추는 이국적인 볼거리입니다. 저희도 이곳에 정착한 다음 해에 카메라로 중무장을 하고 구경을 했었는데,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참관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을 하는지, 하마터면 제 아내를 길에서 잃어버릴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 생활의 9년차로 접어 들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엡 5:16)**


 2016년도 하반기 세례식이 10월 첫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25명이 결단을 하고, 매주 세례 문답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한국이나 미국의 본 교회에서 경험했던 세례식도 은혜스러웠었지만, 이렇게 선교지에서 주의 잃어버린 자들을 한명, 한명 주님 앞으로 돌려서, 마침내 세례를 받게 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 벅차고 설레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 놓고, 서서히 주님을 알아 가기 시작하고, 마침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이렇게 세례 받기로 결단하는 과정은 마치 한편의 감동적인 신앙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새롭게 믿음의 길로 들어선 세례 예정자 25명이 이번 세례를 통하여 일생을 다하도록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두가 여러 동역자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곳까지 온 것임을 잘 알고 감사 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행 1:5)**



**제레마이아**

'제레마이아'의 어머니는 작년 디고스 예일 교회가 설립된 이후부터 나무 조각으로 보수한 낡은 자전거를 타고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대화를 나눌 때마다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같은 이야기를 매주 반복하곤 했습니다.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기는 커녕 많은 문제만 일으키고 있다고 상심이 컸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말 대학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학생들과 부모님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는 기간에 제레마이아의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교회로 찾아 왔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제레마이아를 처음 보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강권에 못이겨 억지로 온 것이 눈에 확연할 정도이고, '나는 불량합니다.'라는 것을 마치 몸으로 표현하듯이 산만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야기하는 내내 껌을 씹고 있었지만, 제레마이아의 몸에서 풍기는 담배 냄새를 능가하는 형용하기 어려운 냄새가 코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장학생 자격 조건에 따라 인근에 있는 대학의 입학 허가서를 비롯한 제반 구비 서류를 제출하고, 교회 출석과 교회의 지도에 따른다는 약속을 하고, 그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강력한 추천(?) 으로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약속대로 매주 교회에 출석은 하기는 하는데, 예배가 끝나고 친교를 하는 시간에 오기도 하고, 옷차림은 제 멋대로이고, 교회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등 아슬아슬한 모습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매주 교회에 나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기특해서 만날때마다 칭찬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점차 예배 시간에 맞추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성경 공부 시간에도 참석하고, 회중 앞에서 성경도 봉독하고, 찬양팀에 관심을 보이며 드럼을 배우기 시작하고, 예배후 의자 정리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점차 옷 매무새도 단정해지고, 교회에서 친구들도 생기고, 언제가부터 몸에 찌든 고약한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는 다음에 세례를 받겠다고 미루는 가운데, 제레마리아는 약 8개월만에 믿음을 고백하고 이번에 세례를 받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로나

일반적으로 매년 5월 둘째주를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곳에서는 5월에는 '어머니 주일', 그리고 6월에는 '아버지 주일'로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디고스 예일 교회에서도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6월 둘째주에 '아버지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예배 중에 아버지들의 간증과 찬양이 있었고, 자녀들이 아버지께 교회에서 준비한 감사의 선물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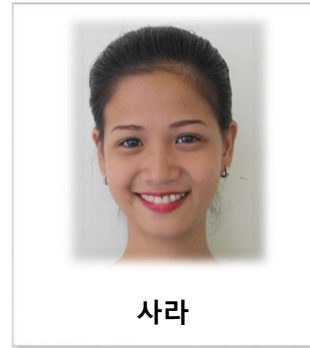
그런데 이렇게 모두들 밝고, 기쁘게 아버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앞 줄에 앉아 있던 '로나'는 예배 시간 내내 눈물을 훔치더니, 마침내 고개를 숙이고 예배당 밖으로 조용히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예배당에 다시 들어오지 않아서, 예배 중임에도 불구하고 걱정스런 마음에 나가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교회 마당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고 있는 '로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예배 중에 작년에 병으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너무도 생각이나고, 보고 싶어서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까지 미처 배려해 주지 못해서 얼마나 미안하고 가슴이 아픈지 덩달아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이런 '로나'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여 이번에 세례를 받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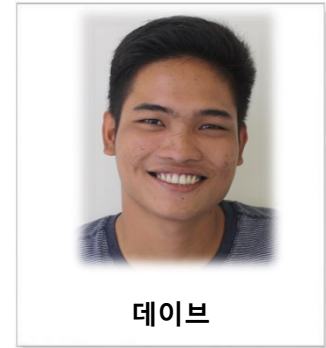
로델



알준



사라



데이브

6년전부터 마띠 고등학교에서 한글학교로부터 제자반 훈련까지 참여했던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장학금을 후원 받아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또한 이제는 디고스 예일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야말로 저희에게 맡겨주신 디고스 사역의 증인들이고, 장학 사역의 열매들입니다. 각각의 얼굴에서 쉽지 않았던 지나온 시간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학교로 쫓아 다니고, 집으로 찾아 가고, 병원으로 뛰어 가고, 부모님을 만나 설득하고, .... 그냥 이러다가 허탕 (?)을 치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이 될 때도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신앙적으로 부쩍 자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때가 되어 결단을 하고 세례를 받기로 작정하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로델'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모든 학생들을 대표할 정도로 리더쉽이 있고, 성실한 학생입니다. 한번도 '아니오'라고 거절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누구 보다도 더 조심스럽게 오래 기다렸었습니다. '알준'과 '사라'는 아침 일찍 어릴적부터 다녔던 카톨릭 교회에 갔다온 후에 디고스 예일 교회의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학생들입니다.

'알준'은 카톨릭 교회의 학생 회장으로, 그리고 '사라'는 카톨릭 교회에서 매년 개최하는 '미인 대회'에서 수상을 할 정도로 인기가 있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결단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데이브'는 3년전 대학으로 진학할 당시 경제적인 이유로 아버지의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학교에 오래 다니나 보자!'라고 할 정도로 심한 말을 들었는데, 정말 깨끗하고, 밝고, 넓은 마음을 가진 학생으로 잘 자랐습니다.



커어스틴



로즐린



아이리쉬



진

'커어스틴'는 노래를 잘하는 학생입니다. 이번에 세례를 받기로 결단하고, 먼저 부모님과 상의를 했었는데,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어머니의 반대로 인하여 다음 기회에 세례를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믿음이 굳건하여 마침내 어머니를 설득하게 되었습니다. '로즐린'은 말이 없이 언제나 웃음으로 이야기 하는 학생입니다. 감사하게도 늘 주변 친구나 가족들을 교회에 데리고 왔었는데, 마침내 친한 친구를 전도하고, 이번에 같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과 '아이리쉬'는 다른 고등학교 출신인데, 단지 '한국말'을 배우고 싶다는 동기로 마띠 고등학교 성경 공부반에 합류를 했던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을 고백하고 한국말이 아니라 '천국말'을 배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철없는 어린 학생들인줄 알았는데, 어느덧 믿음이 자라고, 도전을 받고, 결단을 하고,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니, 도리어 제가 더 큰 은혜를 받고 감사 할 뿐입니다. 고등학교를 가까스로 졸업하고 대학 진학은 커녕, 험한 진로를 따라가야 할 인생들 이었는데, 디고스 예일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순종하는 가운데 마침내 복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일에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을 기억하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그저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 28:19)**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

1. 디고스 예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2. 익핏 지역 사역을 위하여
3. 장학생들과 장학 사역을 위하여
4. 하반기 세례자들을 위하여